

국어와 독일어의 핵심구조 :*

—중주어 구문에 대한 생성문법에 의한 분석—

유 성 렬
(원광대학교)

You, Seong-Ryol. 1999. **INFL-Structure(Head-Phrase) in Korean and German - The Analysis on Multiple Subjects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s*, 7-1, 139-159. In some respects, Korean and German structure are different each other. In his Minimalist Framework, Chomsky (1994:42) says that a language might allow this option (i.e., super-raising in Multiple Subjects Construction) for some heads (T, C, etc.) but not others (AGR). But I argue that in Korean and German there exists AGRs, and Multiple Subjects (especially Central Subject) are governed and checked rather by AGRs rather than by TP. In Korean sentence T-element and AGR-element appear apart, but in German they are not devided through their amalgamation. Generally, the existence of MP is admitted in the highest position in Korean. In German, however, it is not admitted. Although *es* may be inserted in the SPEC of CP in German, I admit the existence of MP and propose *es* is inserted in the SPEC of MP. (Wonkwang University)

1. 서론

언어현상의 배후에는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보편문법(UG)이 존재한다고 상정되고 있으나, 형상구조를 지닌 독일어와 비형상구조적 성질을 띄는 한 국어는 그 매개변인(Parameter)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언어현상을 분석하는 최적의 이론으로 Noam Chomsky의 Generative Grammar가 전 세계를 품미하고 꾸준히 변화 발전하여 나가고 있다.

* 본 연구논문은 1998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그러나 한국어나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변화하는 이론을 무조건 추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중주어 구조를 허용하는 언어에서는 필수이론에 의한 의미역의 의미역 이론 대신 Head-Complement Relation으로 내적 의미역 관계를, Spec-Head Relation으로 외적 의미역 관계를 설정해서 접합점의 조건으로 삼았다. Ura(1993)에 의하면 중주어를 허용하는 언어는 모두 Super-Raising을 허용한다고 했다.

(1) If a language allows the so-called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 then it also allows super-raising to take place.

이러한 Ura의 제안에 대해서 Chomsky(1994)는 Spec-Head Relation과 Head-Complement Relation이 기능범주의 핵인 T(case)나 C(WH-feature)에는 적용되지만 AGR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 A language might allow this option for some heads but not others(perhaps C but not AGR).(Chomsky 1994:42)

이리하여 소위 자질유인이론 (Attract-F Theory)(1995)에서는 종래의 이동이론(Move - α 또는 Affect - α)이 Attract-F로 최소화되고 또 AGR이 불필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독어에서는 시제자질과 함께 일치자질이 명백히 존재하며, 국어에서도 특히 경칭 표현에는 이를 인정함이 더 합리적이라 본다.

본고에서는 중주어 구문으로 국어에서

- (3) a. 장미가 꽃이 예쁘다.
- b. 내가 이 책이 재미있다.
- c. 어머니가 영희가 예쁘다.

독일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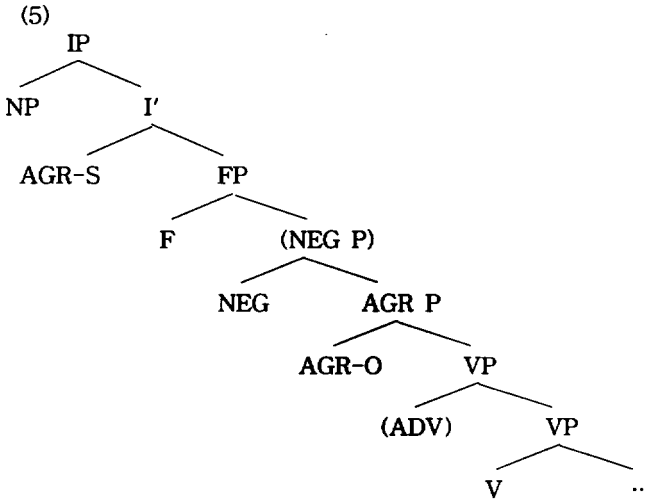
- (4) a. Es kommt der Fruhling.
- b. Es fliegen die Voegel vom Sueden.

위와 같은 중주어 구문을 중심으로 Chomsky의 INFL구조 특히 Attract F Theory에서의 TP구조와 AGR 삭제론을 재론하면서 국어·독일어 모두 주

격을 점진함에 있어 T자질보다 AGRs가 더욱 적절함을 논하고자한다.)¹⁾

2. 독일어와 국어의 핵심구조

2.1 Chomsky(1988)는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에서 INFL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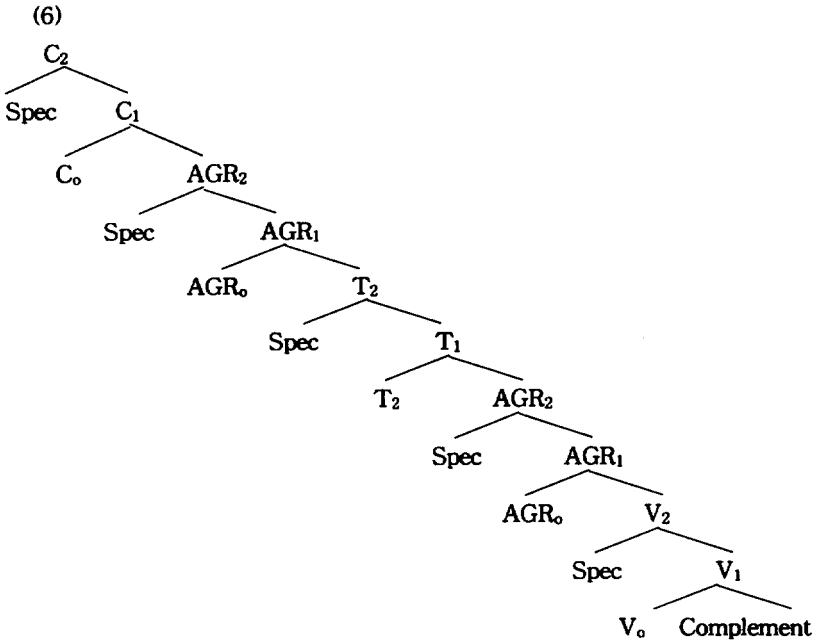
여기서 AGR-S 외에 AGR-O를 설정한 것은 Kayne(1987) Pollock(1988)의 주장을 따라 많은 Romance 계 언어에서 과거 분사가 그 보어와 일치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설정한 것이데 이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며, 영·독·국어의 분석에서는 이를 따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본고에서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논의로 하고자 한다..

2.2 Chomsky는 1993년 가을학기에 그때까지의 엄격한 X^{*}, X', XP의 순서로 투사되는 X-bar 이론을 수정하여 중주어(중목적어)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multiple Specs를 인정하여 "Bare X-bar Theory"를 제안했다.

1) 또한 의존문법, 생성문법, 형식의미론 등의 통합문법이라 할 수 있는 어휘기능문법(Lexical-Functional Grammar)에 의거하여서도 이를 논술하려 하였으나 분량상 이를 따로이 발표하기로 한다.

여기서 'Bare'란 'Simplest or free from any stipulation' 즉 간단하며 어떤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이란 의미이다.

그리하여 X-bar 투사규칙을 포기하고 Initial Numeration에서 바로 그 어휘자체를 선택해서 어휘자체가 투사된다고 가정하여 $love_0(v_0)$, $love_1(v_1)$, $love_2(v_2)$, $love_3(vp)$ 형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른바 필수이론(Bare Phrase Structure)에서의 전체 구구조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2.3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NEG의 탈락인데, '88년엔 NEG을 핵심어로 보고 F의 보(충)어(complement)로 생각하였으나, '93년의 구조에는 이의 기술이 빠져있다. 이는 당연한 사고의 전환으로서 NEG은 핵심어로 NEG P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VP에 대한 일종의 부가어(adjunct)로서, VP에 대한 NEG 위치는 AGR이 강하나 약하나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 불어나 중세 및 중세 영어에서는 NEG P가 존재한다 하겠지만 영·독·국어에는 부정어가 단순한 부가어 Neg로 존재함이 상례이며, 부정구어를 형성할 때만 Neg P를 인정함이 간명할 것이다)

- (7) a. John does not read the paper.
- b. Hans liest die Abhandlung nicht.
- c. 철수는 그 논문을 읽지 않는다/못한다.

영어의 경우 AGR이 불투명하여 (opaque) 즉 형태론적으로 빈약하여 조동사일 경우에는 I-raising해도 상관없으나 일반동사일 경우에는 의미역 할당을 위해 I-lowering을 해야한다. 이런 연유로 부정어 NEG(not)이 있을 경우 핵심어의 이동은 국부적이어야 한다는 핵심어 이동계약(Head Movement Constraint)을 어기지 않기 위해 조동사 do를 두어 부정을 형성한다.

이에 반해 독일어의 AGR은 투명하고도 (transparent) 강하여(strong) NEG의 존재에 관계없이 Tense의 요소와 함께 정동사 V속에 병합된다(incorporate). 독일어에서 문장부정의 NEG은 VP에 대한 부가어적 성격을 띄며, 영어에서는 IP에 대한 부가어인데 부사의 성질에 따라 IP 또는 VP에 대한 부가어를 형성하듯이 부정어 not도 조동사의 유무와 AGR의 성질에 따라 상이한 위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면, 이전의 Chomsky의 견해와 달리 보편문법적 NEG의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²⁾

2.4 AGR과 TP 및 이의 SPEC에 관하여는 최근 자질유인이론에서 AGR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하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논할 것이다.

3. 국어의 일치소 인정 문제와 중주어 구조

3.1 국어의 일치소 인정문제

먼저 N. Chomsky(1995)에 따라 AGR을 배제하고 이를 국어에 적용하는 이론을 점검해 보자.

윤만근(1996)은 한국어의 격은 D가 부여한다고 하는 이론에는 동의하나, 한국어에는 인구어 같은 AGR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의 예를 보자.

- (8.) a. 당신/당신들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보시었다.
- b. 할머님/할아버지들께서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손자를 보시었다.

2) 본고에서는 부정의 기술이 목적이 아니므로 부정에 관하여는 핵심구조의 기술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만 해두고자 한다.

- c.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손자를 보시었다.
- d.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보시었다.
- e. 아버님은 건강이 좋으시다.

위에서는 2, 3인칭 단/복수 주어에서 주격존대사가 사용되고 동사도 그것에 상응하는 존대어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 주격존대와 그것에 상응하는 존대어가 성, 수, 인칭을 구별하면서 일치(AGR)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 3인칭에서는 주격 존대사와 그것에 상응하는 존대어를 성, 수, 인칭을 구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는 인구어와 같은 AGR은 없다고 본다. 위는 모두 정문이며 내포문은 비시제절이다. c의 내포문은 단지 품위가 없는 무식한 표현일 뿐이다. N. Chomsky(1994,1995)에서 제시된 BOC로 보아 손색이 없고, sentence grammar에 모순이 없는 정문이다. “돌아가시기”, “눈을 감으시기”, “숨을 거두시기” 등은 BOC+ α 의 형태로서 Performance system에서 부여된 사회언어학적인 부분인데, 이를 제거하면 이 표현들은 모두 BOC인 “죽다”로 나타난다. 또한 e에서 “아버님”은 topic 또는 focus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좋으시다”와 관련지어 AGRs와 일치점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격존대사”와 함께 사용하는 “존대어”는 AGRs에 의해서 일치점검을 받는 것이 아니라, Initial Numeration에서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분석은 문장의 전후관계를 인정치 않는 것이 되고 이 전후관계의 일치를 주도하는 것이 AGR이라 할 때, 그때 그때 임시변통적으로 (adoc) Tense라느니 Initial Numeration이라느니 하는 설명보다는 우리말에서도 AGR의 존재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더욱 UG적 접근법이라 생각된다. 무식하거나 품위가 없는 표현을 모두 정문으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며, BOC+ α 의 설명에서 본인은 이 α 가 주어와의 일치요소라 보여진다. 또한 topic의 자리에 있는 ‘아버님은’이 일치점검을 받는 것이 아니라하나 그렇다면 ‘건강이’란 물주어에 좋으시다는 존대어를 쓴단 말인가? 이 모든 문제가 AGR의 존재를 불합리하게 부정하고 무리하게 TP의 존재만으로 논리를 전개하려는 N.Chomsky의 Attract-F Theory의 맹종의 결과라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말에 일치자질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가?

Chomsky(1995)는 (보편)문법적으로 허락되는 유일한 기능범주는 보문소(C), 시제(T), 한정소(D)뿐이며, 일치소구는 그것이 주어·목적어·기타 어떤 범주의 일치소든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다음의 이유에서 김선웅(1996) 등처럼 주어일치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첫째, 주어 존재법의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

(9)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시었다.

여기서 주격조사 '-께서'는 시제와 무관하다.

둘째, 국어의 비정형 문장(NON-FINITE CLAUSE)을 볼 때 주격의 점검이 시제라기보다 주어 일치소에 의존한다고 보여진다.

- (10) a. ?[내가 그 일을 했기]가 어렵다.
 b.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c. *[할아버지가 앉으셨도록] 자리를 양보했다.
 d. [할아버지가 앉으시도록] 자리를 양보했다.

셋째, 복수 표시소 '-들'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 (11) a. 너희 그만들 놀아라!
 b. 애들아 아직도 놀고들 있니?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꼭야에는 주어 일치소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3.2 한국어 중주어의 기저구조

3.2.1 우리말의 구조는 영어 독일어의 구조와는 상당히 다르다. 시제자질과 (인칭이나 존재어와의) 일치자질을 인정하고 구분할 때, 독어에서는 시제자질이 하위에, 일치자질이 상위에 있어 최종적으로 부여되지만, 국어에서는 존재어등의 일치자질이 먼저고 시제자질이 최후에 부여된다. 따라서 수형도상으로도 이를 구별하여 AGRs와 T를 차례로 위치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말에는 서법성(modality)이 최후에 부가되지만 본고에서는 평서문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또 대조의 편의를 위해서도 최상위의 MP설정을 생략한다.

- (12) a. 아버님이 출타를 하시었다.
 b. V(하) AGRs (시) T(있) M(다)
 c. [TP [AGRsP [Neg P [AGRoP [VP...]]]]]

중주어란 주어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말과 같은 능격-절대격(Ergative-Absolutive) 언어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Chomsky는 SVO언어에서 EXP, SU로 나타나는 MSC(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와 SVO언어에서 Spec 2, Spec 1으로 나타나는 중주어 구조가 그 성격은 다를지라도 이들을 MSC로 통합하여 이론을 전개시킨다.

한국어의 격은 DP의 D가 부여하고 점점은 AGR이 한다고 가정한 안희돈(1988)과 양동휘(1995)에 따라 중주어(및 증목적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한국어의 격은 DP의 D가 부여하나 점점은 영어와 같이 $[\pm T]$ 가 한다고 가정하고 한국어에는 AGR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pm T]$ 가 격을 점점한다고 주장한다(윤만근 1996.16장). 그러나 여기서는 필수이론에 따라 AGR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독일어와 국어 공히 AGR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다만 필수이론 때까지만 하여도 영어에 TP의 지정어는 없고 주어는 AGRsP의 지정어라고 가정했는데, 이제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1995)에서는 AGR을 부정하므로 이와는 다르게 AGR의 존재를 인정하고 AGRP의 지정어가 주어가 되고 TP의 지정어자리에 FF(OB)나 EXP가 나타나는 자리로 인정하여 중주어구조를 형성한다고 본다.³⁾

최소이론(1992)에 의할 때 DP-분석에서 영어에서는 소유격은 D가 부여하고, 주격은 T가 대격은 V가 각각 점점한다고 가정했다. 이것은 격점점 요소가 일원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 모든 격이 D에서 부여된다고 보고, 주격과 동격 및 소유격 그리고 대격도 격점점은 일차적으로는 V에서 결정적으로는 (T보다) AGR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격부여 요소가 일원화되어 이론이 최소화될 것이다.

중주어는 첫째, 소유격으로 연결된 명사구나 복합명사가 중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둘째로 능격 / 절대격성을 지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셋째로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명사로 나타나 중주어가 되기도하고, 넷째로 계사동사 '이다'의 보어명사가 주격을 가질 때 중주어 구조를 이룬다. 다섯째 실질적 기능에서는 목적어이면서 형태상으로는 주격을 가진 소위 주격 목적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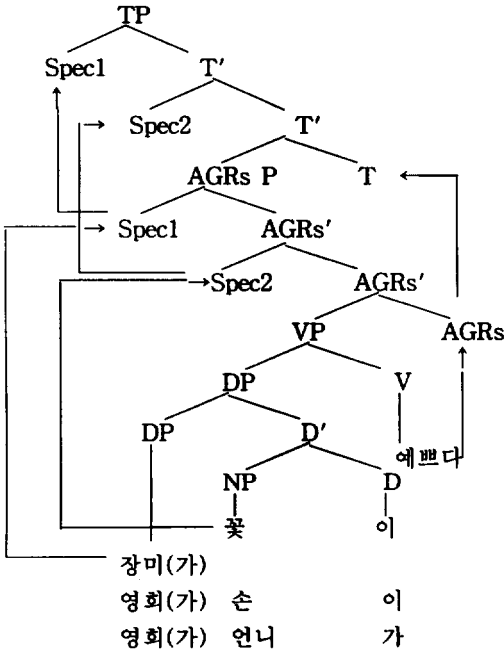
이제 이 순서대로 먼저 복합명사에서 나타난 중주어 구조를 분석해보자.

첫째 앞 명사가 소유격이나 복합명사의 일부인 경우의 수형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3) Chomsky(1995)에 의하면 TP의 지정어가 주어가 되고 종전의 AGRsP의 지정어 자리에는 FF(OB)나 EXP가 나타나는 것으로 중주어구조를 논하므로, 본고와 그 논지가 다르지 않다.

아래 (13)의 수형도에서 중주어와 술어가 AGRsP, TP 에서 점검된다. “예쁘다” 도 그대로 선택되어 들어와서 “예쁘다” 로 구성된 과정을 보면 AGRs, T의 점검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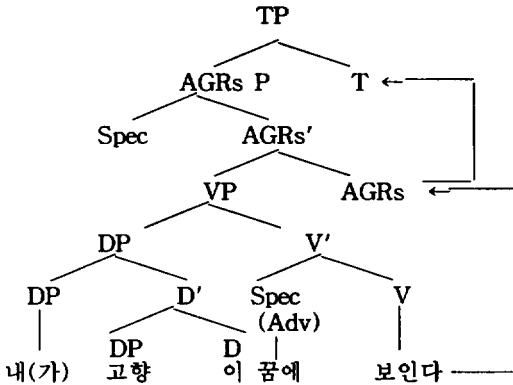
(13)



사실 대부분의 중주어구조가 소유격+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어 「장미의 꽃이」, 「영화의 손이」, 「영화의 언니가」 등으로 환언할 수 있다. 그러나 장미와 꽃, 영화와 손등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고, 이 때문에 「꽃이 장미가」, 「손이 영화가」(예쁘다)라고 어순을 바꾸어도 일치관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마는, 「영화가 언니가」는 「언니가 영화가」(예쁘다)로 바꾸어 쓰면 비문이거나 색다른 의미의 문장이 된다.

두 번째로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가 주격을 지니면 일반적으로 능격 / 절대격 구문으로 나타난다. 다음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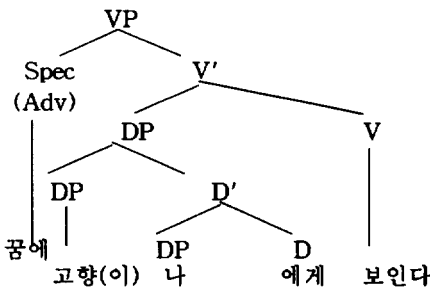
(14)



능격 / 절대격은 다 같은 주격이지만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하나의 D가 Erg / Abs라는 두 가지 다른 주격을 점검할 수 있다. 한국어의 중주어의 격도 [이/가]로 서로 다른 경우가 많지만 동일한 하나의 H(D)가 두 개의 다른 주격을 점검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명사구로 바뀌어 중주어 구조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Chomsky(1994:33)에서 부사의 위치는 논항의 위치와 같다는 주장을 수용할 때 부사구를 주격명사와 동일하게 기술할 수 있고 따라서 간단하게 위의 VP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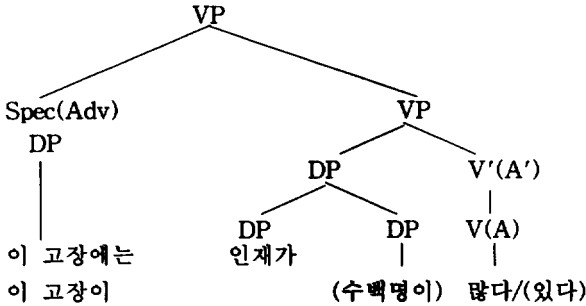


위에서 “교향이”는 표면구조에서 주격주어이나 의미적으로는 “보인다”의 보어이다. 따라서 동사로부터 ABSoP로서 일치점검을 받는다. 그러면 “교향이”는 절대격주어(Absolutive)가 된다. 부사의 위치를 논항의 위치와 동일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위와 논지를 같이한다.

네 번째로 be 동사의 보어가 주격조사 “이/가”를 부착하고 나타날 때에도 중주어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인재 수백명”이라는 복합명사

에서 중주어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수백명(이)”를 보어로 보면 보어가 주격을 부착한 경우가 된다.

(16)



다섯째로 주격 목적어 구조에 대해 논의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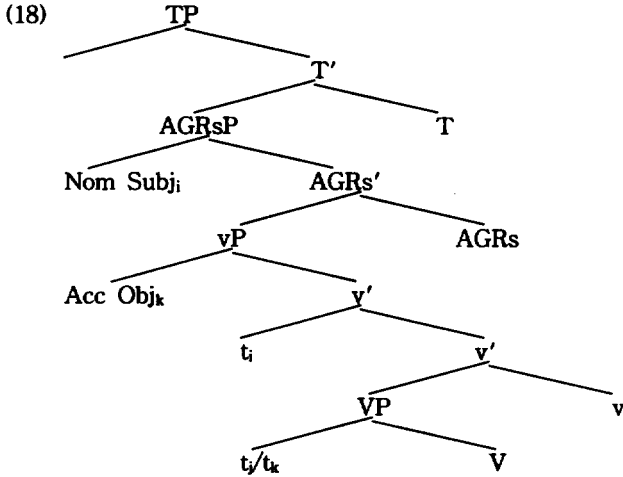
- (17) a. 내가 이 사과가(를) 먹고 싶다.
 b. 이 나무가 열매가(를) 맺을 수 있다.
 c. 이 은행이 돈이(을) 빌리기 쉽다.
 d. 철수가 영희가 좋다.
 e. 이 형겅이 물이 안 스며든다.

위의 예문들 중에서 d는 능력-절대적 구문의 설명으로 가능하고 사실이 자체로 「영희를 좋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e도 「물을 안 스며든다」라고 할 수 없어 주격 목적어의 예로는 김선웅(1996)에 따라 a, b, c로 한정함이 좋겠다.

이 주격 목적어의 격부여는 VP내에서 V로부터 부여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이외 격점점에 관해서는 목적어 일치소구의 지정어 자리라는 설(Tada 1993, Fukuhara 1993), 시제소구의 지정어자리라는 설(Koizumi 1994)등이 있으나, 전자는 목적어 일치소구(AGRoP)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Chomsky 및 국어·독어·영어의 구조상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후자는 국어에서 TP가 최후의 격점점위란 점을 감안하고 주격 목적어가 실질적으로 목적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 외에도 김선웅(1996)에 의하면 한국어의 주격 목적어는 주어 일치소구의 하위 지정어(lower SPEC)자리에서 격점점되고 주격주어는 주어일치소구의 상위지정어(higher SPEC)자리에서 격점점되며 목적격 목적어는 비

실질범주(monsubstantive category)인 경동사구(light verb)의 지정어 자리에서 격점검된다고 하며 Chomsky(1995)의 필수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형도를 제시한다(동지).



3.2.2 위에서 증주어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H(T)가 두 지정어의 격을 점검하도록 허용했는데 그 H가 어떤 다른 기능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 Chomsky의 가정을 살펴보면 AGR은 H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one-to-many checking이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19) The Cases assigned are always the same, but agreement may vary. This may reflect the fact that Case is an inherent feature of the case-checker (thus, transitive verbs check accusative, finite tense checks nominative), but there is no reason to view the ϕ -features of AGR the same way: perhaps AGR in these cases simply checks such features, whatever they are, lacking ϕ -features of its own. (Chomsky 1994:48)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동사구의 시제자질이 주격을 점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AGR자질이 주격을 점검한다고 논의한다.

이제 위 Chomsky와 견해를 같이하며 국어를 분석한 윤(1996:588)의 논거를 들어보자. 「격은 하나의 핵에 의해서 Spec2, Spec1에 격을 점검할

수 있지만, AGR은 다음(20)와 같은 우리말 중주어 구조에서, 일치현상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 즉, 중주어의 경우 Spec2와 H는 AGR의 일치를 보이나 Spec1과는 일치관계가 밀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20) a. 누나가 눈이 예쁘다.
 Spec1 Spec2 AGR
 b. 현대백화점이 구두가 천원이 싸다.
 Spec1 Spec2 Spec3 AGR

위 (20.a,b)에서 가까운 주어가 의미적으로 일치(AGR)를 보이고, 먼 곳에 있는 중주어는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즉, 위 a에서 예쁜 것은 “눈”이지 “누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b에서 “싸다”와 일치를 보이는 요소는 “천원”이나, “구두”이지, “현대백화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주어의 경우, 핵과 중주어인 Spec1간에 형태론적인 격의 일치는 있을지라도 AGR의 일치나, 의미적 일치는 동사에서 멀면 멀수록 약해지거나 없다고 본다. 따라서 Miyagawa(1993), Koizumi(1993), Ura(1993) 등에 의해서 제시되고 Chomsky(1994)에 의해서 받아들인 중주어 수용구조에서 Spec1과 Spec2가 외현적으로 격은 함께 나누어 갖지만, 위 (20.a,b)가 보여주는 것 같이 핵과 거리가 먼 중주어는 일치자질, 즉, 의미적 일치는 보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박약하다. a의 예문에서 예쁜 것은 “눈”이지 “누나”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또 b에서도 값싼 것이 “천원”이나 “구두”일 뿐이고 “현대백화점”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물론 주어에서 멀수록 의미적 일치가 약화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눈이 고와서 예쁜 여자다”라든지 대표적인 상품 몇 가지만 싸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품목은 타 시장과 엇비슷하고) 한가지 상품만 싸도 그 소비시장이 싸다고 말하는 사례들을 볼 때에 그 시장이나 백화점이 싸다고 할수 있으며, 또 문장의 전후관계로 보더라도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등 선택이 가능하지만 문장에서 동사와의 일치 내지는 문맥의 일치를 위반할 수 있는 문성분은 없다. 또한 우리말에서는

- (21) a. 눈이 누나가 예쁘다.
 b. 구두가 천원이 현대 백화점이 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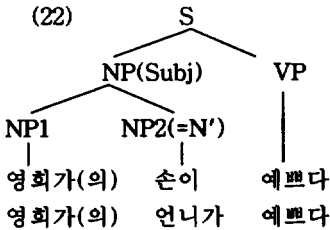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데, 이런 경우는 핵에서 거리가 먼 Spec이 일치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 따라서 핵과의 거리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의미적으로 핵과 일치되는 것만이 중주어 중에서도 주된 주어가 되므로 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자질은 T가 아니라 AGR이라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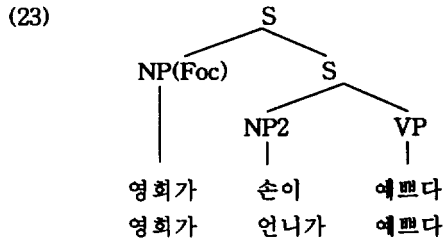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즉 Focus structure인 경우는 곤란한 문제를 제기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Possessive meaning 과 Focus meaning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Possessive structure (with literal possessive m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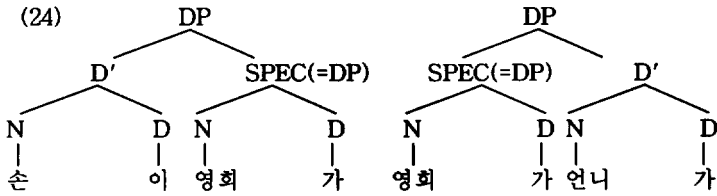


Focus structure(with focus meaning)



이 분석에 의하면 Focus St.에서 첫 번째 주어가 동사와 일치관계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복합명사구로 구성될 수 있는 두 명사간의 관계는 두 경우 모두에서 구조적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중주어인 경우에도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의 핵심명사가 있고 다른 주어들은 이에 대한 소유격, 부사구, 전치사구 등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식 명사구적 구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핵심명사를 축으로 하고 다른 명사는 이에 대한 Spec으로 구조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손이 영회가」 및 「영회가 언니가」의 구조도를 다음과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4. 독일어의 이중주어

4.1 먼저 독일어의 시제자질과 일치자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 (25) a. Hans geht morgens früh auf.
 b. Du hast Hans geliebt.
 c. Es sangen die Vögel auf dem B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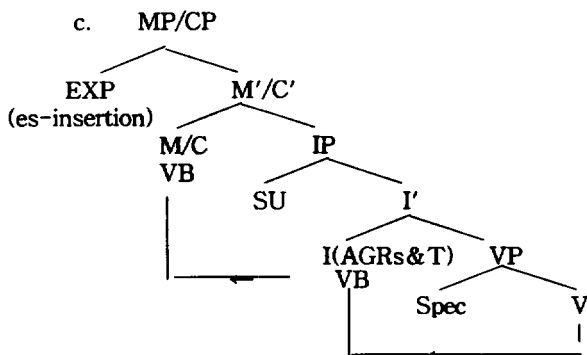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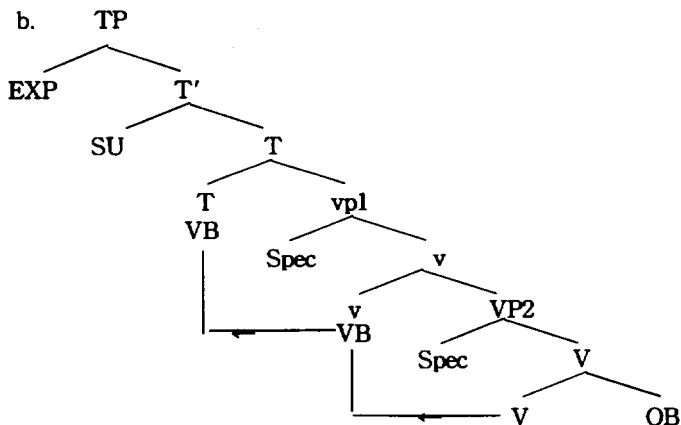
세 문장의 동사를 보면, geht ... auf, hast ... geliebt, sangen 등으로 나타나는데, geht(...auf)는 현재부정형 어간 geh + 3인칭어미 t, hast (... geliebt) 역시 현재부정형 haben이 단수 2인칭에서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이며 sangen 역시 과거 기본형 sang이 복수 3인칭에 따라 sangen 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예로 볼 때 독일어 동사는 먼저 시제자질이, 그 위에 인칭과의 일치자질이 부가된다.

4.2 독일어에서 시적 회화적 어감을 살리기 위해 보통의 문장과는 아주 상이한 es를 삽입하는 예가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자.

- (26) a. Es kommt der Frühling.
 b. Es flogen die Vögel vom Süden.

이제 이러한 외곽주어 (영: there, 독:es)가 나타나는 경우를 논하여 보자. Chomsky (1995:368)에 의하면 주어 SU는 [Spec, T]이고, EXP는 [Spec, AGRs]이다. 이를 구조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a. EXP [SU [T^{zero} XP]]



MSC는 EPP가 적용될 때만 나타난다. 그런데 실제 어순은 EXP, 동사, SU 순으로 나타나는데 왜 (27.a.b)처럼 동사가 SU 다음에 나타나도록 한 것인가? EXP는 MSC 때에만 TP에 merge로 부가되어 나타나는 외곽 주어이다. 따라서 MSC가 아니고 주어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에 동사는 당연히 SU 다음에 온다 그런데 MSC의 기저구조에서는 EXP, SU의 어순으로 나타나나 PF에서는 V-second의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사가 EXP 다음으로 이동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MSC의 PF에서는 EXP, V, SU의 순서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AGRs는 이제 T가 강할 때에만 나타나며 MSC에서만 나타난다. 즉 경동사 v에 강한 자질을 부여하여 목적이 overt하게 인상되는 Icelandic를 설명하고, T에 강한 자질을 부여하여

vp 내의 주어가 TP의 주어로 인상되고 또 MSC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 T에 강한 자질이 부여되는데, 이 강한 자질이 EXP를 TP의 외곽주어로 병합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AGRo이나 AGRs의 필요성이 없게되었다(Chomsky 1995:368~)고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명백히 존재하는 AGR 자질을 인정하고 위의 그림 C와 같이 구성하여 expletive는 MP(CP도 가능)의 SPEC으로 SU는 IP의 SPEC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일어에서 이중주어 es를 삽입하는 현상은 아주 특이한 서법성(Modality)의 경우이며 엄연히 존재하는 AGR자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시제 자질이 이와 함께 표현되는 독일어 MSC구조를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영어나 독일어에서 there나 es를 삽입하여 이중주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속하고 우리말처럼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다. 존재적 서정적 성질을 띄는 이러한 특수구문을 존재적 서정적 화법(existential and emotional modality)이라 규정지어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우리말에서는 서법성 M(modality)을 표현하는 문장어미가 문장 끝에 그 억양과 함께 [—다](서술문), […까](의문문), […구나](감탄문), […파])(명령문) 등으로 부가되는데, 사실 독일어에서도 어순이외에 억양에 따라 Wie schön ist die Jugend !(?) 같은 문장이 감탄문으로도 또는 의문문으로도 인정되며, Du kommst zur Schule. 같은 일반 평서문이 상황과 억양에 따라 명령문이나 의문문 또는 감탄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말과 같이 IP구조 위에 MP라는 문성분을 인정함이 더욱 합당한 이론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MP(modality)를 인정한다면 SPEC MP로서 문두에만 삽입될 수 있는 es나 there의 ~~성질이~~ 명쾌해져서 도치되어도 삭제되지 않는 다른 문 성분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 expletive es는 보통의 문장 속에 존재하다가 인상(raising)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서정적 성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두에 바로 삽입(Es-Insertion)되는 특수한 현상으로 만일 도치문이 되면 그러한 서법성이 상실되어 예외없이 삭제된다..

4.3 또한 자질유인이론 (Attract F from Move F)에 의해서도 독일어의 이중주어를 점검해 볼 수 있다.

GB에서는 이동현상을 Move-F로 설명하다가, 최소주의 및 필수이론에서는 Move-F의 개념으로 이동현상을 기술해 왔는데, Attract F Theory에서는 이 Move-F를 Attract-F의 개념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Attract-F에 의해서 자질이 표적 K에 끌려간다고 생각하기 보다 표적 K가 가장 가까운 자질"을 유인(attract)한다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다음(28)과 같은 Attract-F의 조건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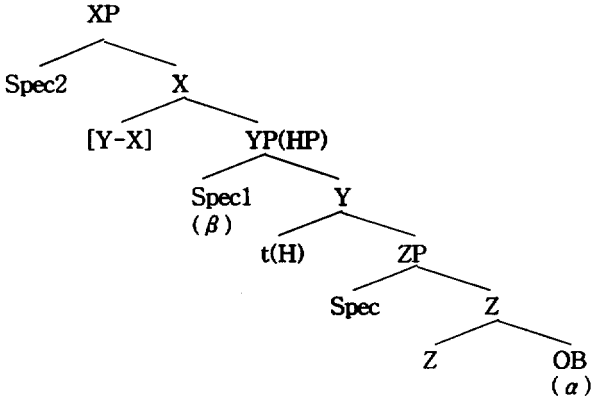
(28) K attracts F if F is the closest feature that can enter into a checking relation with a sublabel of K.

표적 K가 자질 F를 유인한다는 것은 “F의 자질을 소유한 요소 α ”를 K의 Sublabel로써 점검영역에 유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α 는 합치를 유도해내는 FF[F](formal feature of F)를 가진 최소의 요소이고, 또 이 이동이 overt하면 ($\alpha+t$)의 chain을 형성한다. 만일 이 때 FF[F]만이 이동하면 covert movement가 된다. Attract-F의 정의에서 자질 F가 closest feature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closeness”는 “equidistance”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독일어에서 이중주어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어순에 있어서는 정동사가 형식주어 즉 표적 K인 es에 이끌려 독일어의 일반적 어순인 V-second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또 이것에 밀접하기 위해(closeness) 외곽주어 es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사가 그 다음에 위치하는 실질주어와 일치하고 있는데 배어법(Wortstellung)에 있어서는 그의 일반원칙에 따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치 자질은 이 형식주어와의 일치를 거부하고 실질주어 der Frühling, die Vögel 등을 따라 kommt, flogen 등으로 실현되었다. 독일어에서 일치자질은 명백히 실질주어와의 밀접성(closest)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AGR 자질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때 시제 자질도 실질주어를 따라 함께 표현되고 있다. Chomsky가 최소, 필수 이론에 이르기까지 TP와 AGRP를 구분하고 TP를 상위에 위치시키는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도 형식주어 there와 es는 TP의 SPEC으로 하고 AGRsP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국어는 시제자질과 일치자질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만 독일어는 시제와 일치자질이 V속에 병합(merge)되어 나타난다. 독일어 이중주어 문장에서 정동사는 형식주어와 실질주어 사이에서 배어법 및 일치자질을 나누어 따름으로써 그야말로 등거리(equidistance) 관계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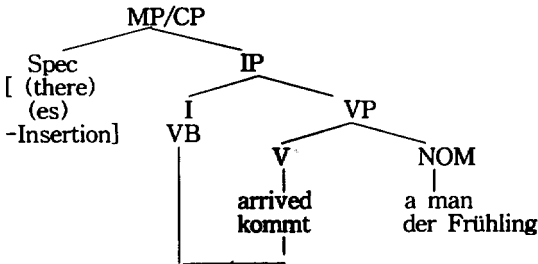
4.4 사실 이중주어 구조는 타동사(accusative)구조와 같은데, Chomsky와 논지를 같이해서 독일어, 영어의 외곽주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unaccusative-구조는 타동사 구조에 숨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FF(OB)의 covert한 인상이 없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unaccusative construction은 다음 수형도와 같다고 가정하고 I(AGR)의 강한 자질이 NOM을 Spec 자리로 overt하게 유인하거나, 또는 EXP가 그 자리에 병합에 의해 삽입된다고 했다. 여기서 독일어의 kommen, fliegen 영어의 arrive를 이탈리아의 arrivare(arrive)와 같이 비대격동사로 보면 TEC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I의 강한 자질에 의해 der Frühling이 IP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것이고, es(영 there)는 MP(또는 C)의 SPEC으로서 문두에 바로 삽입되어 형식주어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V-second의 원칙에 의해 동사가 인상되지만, der Frühling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이다. 그리하여 Der Frühling kommt 의 구조가 <Es> kommt <der Frühling> 의 구조로 타동사처럼 표현되게 된다.

(30)



5. 결론

이 논문에서 명확하게 국어와 독일어에서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1) a. 국어에서 일치소(AGRs)는 분명히 존재하며 영·독·불어 등의 언어와 달리 시제속에 병합되어 있지도 않다. 이때 위계상 일치소가 먼저고 시제소가 그 위에 위치한다.
- b. 중주어는 이러한 핵심어들로부터 점검되며, 소위 대주어의 점검은 시제소구로부터, 주격주어는 일치소구의 상위지정어 자리에서, 주격 목적어는 일치소구의 하위지정어 자리에서 점검된다.
- c. 중주어는 소유격이나 복합명사구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들 중에는 반드시 중심명사가 있고 다른 명사는 수식어적 성질을 띄며 중심명사는 반드시 일치소구의 점검대상이 있다.
- (32) a. 독일어에서 일치소는 시제소와 병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나타난다.
- b. 형식주어 es가 문두에 추가되는 경우는 서법성의 특수표현으로, 이 es는 TP의 SPEC이라기보다 MP(또는 CP)의 SPEC으로 본다.
- c. 독일어에서 동일한 문장이 어말의 억양에 따라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상위에 MP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국어와 독일어의 중주어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질유인이론의 AGR삭제보다는 그 이전의 AGR존재론이 더욱 적합하며, 예전에 핵심어로 분석된 바 있는 Neg P는 VP내지는 IP에 대한 수식 부사로 파악함이 더욱 적절함을 언급하였다.

References

- 김선웅. 1996. 한국어 주격 목적어 연구. 언어 제21권: 한국언어학회
- 신수송. 1988. 현대독어학. 서울:교육과학사
- 신수송·류수진 1995. 어휘기능문법,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양동휘. 1994. 문법론. 서울:한국문화사
- 윤만근. 1996. 생성통사론. 서울:한국문화사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e Jong-Joo. 1999.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 Chomsky, N. 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Draft of a Talk for Kyoto Workshop. Ms.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eds., K. Hale and S. Keyser. MIT Press.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5.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 Hornstein, N. 1995. *Logical Form*. Blackwell
- Jonas, D. 1994. *Clause Structure Expletives and Verb Movement*. Ms., Harvard University.
- Koigumi, M. 1993. "Modal Phrase and Types of Movements," Ms., MIT.
- Lasnik, H. 1993. "The Minimalist Theory of Syntax: Motivations and Prospects,"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May, R. 1985. *Logical Form Its Structure and Derivation*. MIT Press.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유럽어문학부
Tel (0653-850-6167)
Fax (0653-857-2202)